

국내 및 세계 S/W산업의 현황

I. 국내S/W산업의 현황

1. 국내S/W산업 육성정책

최근 정부는 소프트웨어분야의 벤처기업 성장기반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천6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오는 2005년까지 총 1조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가 수립한『S/W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①내수시장 확대 및 SW 구매제도 등 법·제도개선 ②창의적 전문인력 집중양성 ③해외시장 거점 구축 및 해외 마케팅 활동 등 3대분야에 지원을 집중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통부는 우선 지역 SW산업의

활성화와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게임, 디지털 콘텐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프트타운을 조성,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S/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관련학과 지원과 미국 카네기 멜론, 스탠퍼드 등 해외 유명대학 전문과정 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자바, 컴포넌트, 게임 등 시대흐름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선인터넷 플랫폼, 음성인식 및 합성기술, 온라인 게임 엔진 등 차세대 기반기술 개발에 2003년까지 총 535억원을 투입,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분야를 집중 발굴 육성함으로써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수요창출과 법·제도개선을 통해 S/W 제품의 견전한 유

통을 도모하는 한편 S/W 불법복제 방지 등 지역 재산권 보호를 위해 검찰과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정품 사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해외 마케팅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IT지원센터를 실리콘밸리, 중국 베이징(北京)외에 올해 안으로 미국 보스턴, 일본 도쿄(東京), 중국 상하이(上海), 영국 등에 4개소를 신설하고 내년 중 6개소를 확충, 총 12개의 해외IT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통부는 3월중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소프트웨어 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발전 전략을 마련해 소프트웨어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미국 등 기술선진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표 1] 국내 S/W산업의 시장규모 및 연간 성장을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E)
매출액	1,280,847	1,848,388	2,587,743	3,693,808	5,004,755	5,337,070	7,054,568	8,940,062	11,622,080
증가율	N/A	44	40	43	36	7	32	27	30

* 본 내용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표한 S/W산업 년차보고서 내용중 주요내용을 정리한 내용임.

2. 국내S/W산업의 시장규모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전체매출액 규모는 '97년까지 매년 평균 40%정도의 고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98년의 경우 IMF 관리체제하에서 급격한 시장규모의 감소를 나타냈다.

그러나 '98년말부터 정부의 소프트웨어산업 경기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전산관련 투자 수요가 되살아나 '99년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전년도 대비 32%의 매출규모 증가를 보이며 7조원을 넘어서 IMF이전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2000년에는 약 9조원정도의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2001년에는 무난히 10조원대를 넘어서리라 예상된다.

2000년에 닷컴열풍과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수요가 맞물려 활기를 띠었던 기업용 S/W시장은

올해 경기침체가 예상되면서 예년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지만 이것은 지난해 급격히 성장한 데 따른 상대적인 둔화로 평균 25~30% 이상의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용 S/W 중 ERP는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하게지만 예년과 같은 대형 호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정부 부처·지방 자치단체·정부출연기관 등 정부·공공기관의 수요도 꾸준하리라 예상된다.

반면 그룹웨어, KMS, CRM은 올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룹웨어와 KMS는 올해 정부·공공기관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며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CRM은 금융권을 비롯한 인터넷 닷컴기업, 유통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수익모델의 하나로 집중적인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국내S/W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SI사업분야는 ①전자정부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부문 시장확대 ②금융·제조 부문 아웃소싱 확대 ③해외 SI시장 개척 본격화 ④전자상거래(EC)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리라고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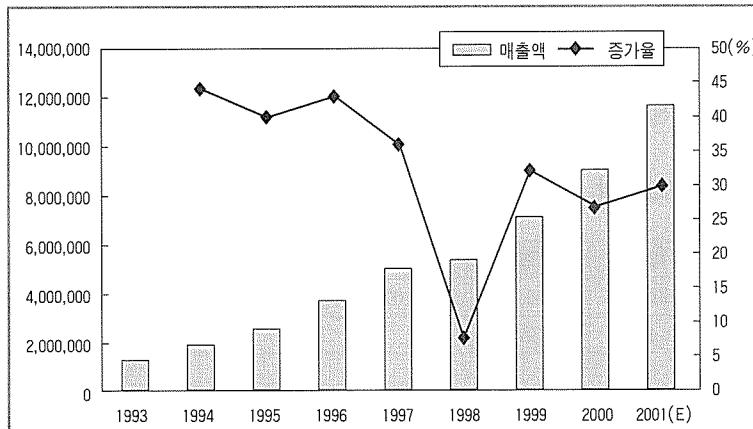
특히 지난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대형 SI업체들은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한 수출비중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업체별 특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중견 SI업체들의 변신 노력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II. 세계S/W산업의 현황

1. 세계IT산업의 현황 및 전망

세계 IT시장에서 S/W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에 18.5%, 1997년에 19.2%, 1998년에 20.1%, 1999년에 21%인 것으로 나타나 점차 그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2000년에는 21.9%, 2001년에는 22.9%를 점유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정보통신분야 즉, 정보통신서비스나 정보통신기기산업이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S/W산업은 상대적

<그림 1> 국내 S/W산업의 시장규모 및 연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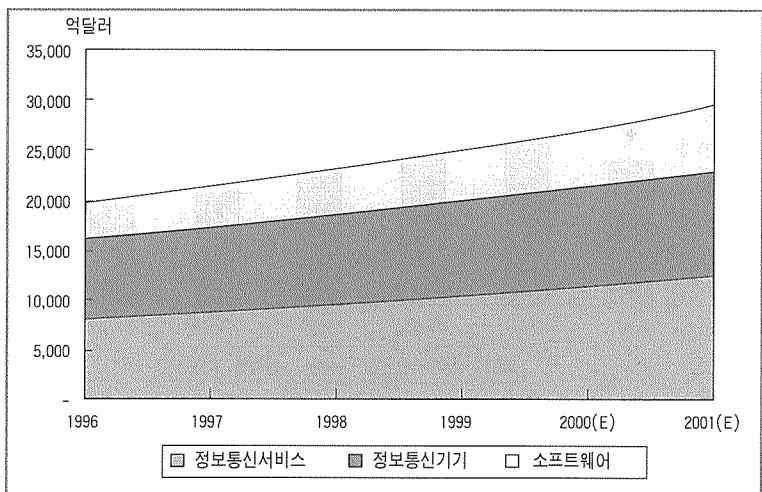
[표 2] 세계 IT산업의 시장규모

(단위 : 억달러)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E)	2001(E)
정보통신서비스	7,901	8,677	9,439	10,341	11,329	12,465
정보통신기기	8,138	8,628	8,983	9,446	9,895	10,291
소프트웨어	3,662	4,130	4,650	5,274	5,977	6,793
합계	19,701	21,435	23,072	25,061	27,201	29,549

* 출처 : KISDI(2000)

<그림 2> 세계 IT산업의 시장규모



으로 급격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세계S/W산업의 현황 및 전망

세계 S/W산업은 1997년에 최초로 전년대비 10% 이상의 고속 성장률을 보인 이후 매년 13% 내외에서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세계적으로 e-business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가 각광을 받으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e-business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SCM(Supply Chain Management),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하였으며, 이 세분야는 2000년 한해동안 50% 이상의 성장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Business Week는 메인프레임 소프트웨어, ERP, PC용 S/W 부문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한 반면에 SCM, CRM, EAI, 보안분야의 성장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3. 주요국의 S/W산업 동향

(I) 북한

1) 소프트웨어 정책

북한은 1980년대부터 초기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하드웨어산업보다는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을 적극 육성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컴퓨터 하드웨어 수준은 32비트 컴퓨터를 조립·생산하는 정도로 자체 개발 능력이 낮아 한국의 1980년대 초반 수준에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한국과 미미한 정도의 차이 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1980년대부터 소프트웨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온 결과 상당한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제3차 7개년인민경제발전계획(1987~1993) 및 제1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1988~1991) 중 산업의 전산화 추진정책에 따라 1990년부터 매년 12월에 전국 프로그램경연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1998년의 제8차 대회부터 전시회 부문이 추가되었는데, 이 대회에서는 경연에 32건, 전시회에 305건 등 총 337건의 프로그램들

S/W 산업

이 출품되었다.

1998년 2월 8일 김정일은 제8차 전국 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프로그램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지침을 시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프로그램기술의 대중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마다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며, 프로그램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체제를 철저히 힘으로써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물질적 수단들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컴퓨터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소프트웨어 산업

북한 소프트웨어의 메카는 1990년 10월 김정일의 지시로 설립된 조선컴퓨터센터(KCC)로서 현재 20, 30대의 젊은 프로그래머 900여 명을 포함하여 4,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센터는 그동안 개발한 프로그램 중 일부를 북한에서 활용하면서 수출도 하고 있다.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로는 지난 1993년 평양 국제비행장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항공교통지휘시스템’과 백화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PC포스 지능수금시스템’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해외에 수출한 소프트웨어로는 ‘심혈관계통 예보진단기’, ‘지문인식시스템’, ‘사무경영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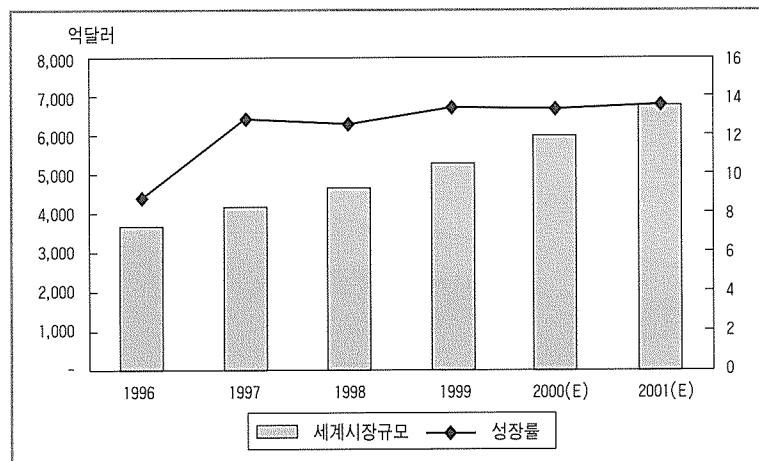
[표 3] 세계 S/W산업의 시장규모 및 연간 성장률

(단위 : 억 달러,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E)	2001(E)
시장규모	3,662	4,130	4,650	5,274	5,977	6,793
성장률	8.8	12.8	12.6	13.4	13.3	13.6

* 출처 : KISDI(2000)

<그림 3> 세계 S/W산업의 시장규모 및 연간 성장률



그램’ 등이 많이 알려져 있다.

심혈관계통 예보진단기는 독일에 20만 달러 규모가 판매되었으며, 지문인식시스템은 이집트에, 사무경영프로그램은 일본에 수출하였다.

특히, 일본으로부터는 인터넷상의 웹브라우저를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과학원에서는 음성인식 프로그램인 ‘칠보산’을 개발할 정도로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은별컴퓨터센터(1995년)에서는 1997년도 각종 국제컴퓨터 바둑대회에서 호평을 받은 바

독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한편, 북한은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1983년 이후 각 대학의 전자공학부문의 교육과정을 확대·개편하고 전자계산기 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하여 왔다.

1983년에 각 대학의 전자공학부문 교육과정을 확대·개편하고 과학원과 김책공대에 전자계산기 연구소를 설치하였으며, 1985년에는 평양과 함흥에 전자계산기 단과대학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1991년에는 김책공대에 컴퓨터양성센터, 1996년에는 평양에 전국프로그램강습소를 각각

신설하였다. 북한의 컴퓨터교육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평양프로그램학원으로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평양주변의 컴퓨터 교육기관들을 통합하여 확대·개편한 것이다.

1998년 2월부터는 김정일의 컴퓨터프로그램 교육강화 지시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인민대학습당, 각 대학 전자공학부, 시·도 제1고등중학교(영재교육) 등을 중심으로 PC 교육 및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북한은 남북경협 관계자들에게 PC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힘입어 2000년 2월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지리학부 지리정보연구소에서 컴퓨터 지리정보프로그램인 '삼천리'를 개발하였으며, 이밖에 농업과학원에서 농업생산지원 프로그램, 조선컴퓨터센터에서 토지정리·건설계획 작성 소프트웨어인 '천지개벽'을 개발하였다.

또한 3월에는 과학원의 원격조사 및 지학정보체계연구소에서 조선식 프로그램에 의한 위성정보자료처리기술을 완성함으로써 위성정보자료 해석과 처리의 현대화를 실현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2) 아일랜드

1) 소프트웨어 정책

아일랜드의 산업지원 정책은 크게 기업육성, 연구개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기업육성 지원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먼저 'Feasibility Study Grant(상업화 가능성조사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인지, 또는 상업화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등을 평가하고 연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원액수는 연구비 총액의 50%까지다.

두 번째는 'Employment Grant(고용촉진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업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일정 액수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때 지원액수는 50%는 최초에 지급하며 나머지 50%는 1년 후에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한다.

셋째, Management Development Grants(소기업 경영능력개발 지원)로서 기록 및 MIS, 사업계획, 전략수립, 경영진 강화 등 4개의 모듈로 나누어 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Mentor 프로그램'은 퇴직 혹은 반 퇴직 상태에 있는 전문가들의 자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개별기업 당 1년에 10일 한도 내에서 창업, 기업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Techstart 프로그

램'이 있는데, 이는 일종의 인턴쉽 지원 프로그램으로 공학전문 인력에 대한 채용금액을 1년 계약으로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나. 연구개발 지원

다음은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 여기에서는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 등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만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Software PAT(The Software Programme in Advanced Technology)' 프로그램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정부의 R&D 지원프로그램으로서 아일랜드 산업의 경쟁력 향상, 해외투자 유치, 벤처창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선정,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Research Technology & Innovation Initiative'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기업의 R&D 수준을 높이고, 통합적인 연구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IR£3천 5백만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기업의 R&D, 제품 및 공정개발, 파급효과가 큰 주요기술 획득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Application Development Initiative'는 아일랜드의 중소기업이 제출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소프트웨어 제품개발과 시장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장진출을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색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국제화하거나 상업화하는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종 조세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정책이 있는데, 기업들로 하여금 R&D 비용에 대한 당해 연도 비용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R&D 보조금 수령액이 IR£50,000 이하인 기업의 경우 R&D 비용의 4배까지 3년간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 소프트웨어 산업

아일랜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의 배경에는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이 있었다. 지난 '70년대 말에 아일랜드 개발청(IDA)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아일랜드에 적합한 산업분야로 선정하였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근거가 제시되었다.

- ① 아일랜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 저렴한 생산비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 ② 소프트웨어의 '청정(clean)' 산업적 성격은 아일랜드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녹색(green)' 이미지와 부합한다.
- ③ 소프트웨어 산업은 우수한 인력조달이 특히 중요한데 아일랜드에서는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인적자원을 조달 가능하며, 영어의 공용어 사용으로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과 긴밀히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배경아래 아일랜드 개발청은 외국의 기존 또는 신규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벌였으며, 이는 크게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단순히 외국인 투자를 기다리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목표로 설정한 후보 기업군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투자에 필요한 지원내용을 조사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일랜드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SI 등 서비스보다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위주, 특히 비즈니스와 비즈니스간의 거래를 위한 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상품개발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상품이든 국내시장이 위낙 협소하여 초기부터 해외진출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었던 관계로 제품종목의 선택도 이에 맞게 이루어졌다.

주요 생산품목으로는 통신관련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응용제품 및 컨텐트, 교육 및 훈련 소프트웨어, 금융 및 재무관리, 인터넷 도구 및 응용제품, 소프트웨어 Tool 등이며, 특정 제품군에서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틈새 분야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처럼 아일랜드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고용도 불과 7년만에 3배 가까운 성장을 보였으며, 고용측면에서 외국기업과 자국기업은 기여도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아일랜드 소프트웨어 산업의 매출액 규모는 '98년 현재

약 52억 달러로서 이 중 80% 이상이 외국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일랜드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수출국이며, 현재 유럽에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의 반 이상이 아일랜드에서 생산되고 있다. '98년의 경우 전체 소프트웨어 생산액 중 약 46억 달러가 수출됨으로써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88%에 달했으며, 그중 약 90%는 아일랜드 주재 외국기업이 수출한 것이다.

(3) 중국

1) 소프트웨어 정책

최근 중국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과 IC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10개년 계획인 '소프트웨어 산업과 집적회로 산업 발전 격려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의 요지는 정부차원에서 자금과 인재 등 자원을 지원하여 2010년까지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연구와 생산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동시에 중국을 IC산업의 주요 개발 및 생산기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다.

중국 소프트웨어산업은 IT산업 중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의 하나인데 비해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기반 취약, 기술경쟁력을 갖춘 자국 기업 부족 및 선진기술에 바탕을 둔 자체 상품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시장 규모는 매우 협소한 실정이다.

특히, WTO 가입이 임박해 올에 따라 기반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중국 소프트웨어산업이 자칫 커다란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에 중국은 자국 소프트웨어산업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인재육성, 자금, 세제 및 법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징

중국의 소프트웨어 시장의 잠재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IDC에 의하면, 1999년 중국의 PC 보급대수는 1,200만대로 전년대비 20% 전후의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에도 연 20% 이상의 보급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PC시장의 확대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수준 및 기술 향상으로 중국 소프트웨어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자국 소프트웨어 업체에게도 많은 호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외국 업체에게도 커다란 매력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중국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징은, ①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의 급속한 증가, ② SI기업의 비율 증가, ③ 소프트웨어산업 투자 및 M&A의 증가, ④ 소프트웨어 유통시장의

질적인 성장, ⑤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부족 현상 등 5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의 급속한 증가는 국민경제 발전에 따른 정보화 수요의 증가와 이의 바탕이 되는 소프트웨어 응용 분야의 끊임없는 확대에서 비롯된다. 이로 인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며,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및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둘째, SI 기업의 비율 증가는 정보기술 응용측면에서의 컴퓨터 응용기술이 질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업 중 시스템 통합과 응용에 종사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데서 기인한다.

셋째, 소프트웨어산업을 상대로 한 투자 및 M&A활동의 활성화이다. M&A방식은 소프트웨어 기업간의 합병, 하드웨어 제조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간의 제휴, 그리고 비IT업체의 상장 소프트웨어 기업 매수 등이 포함된다.

넷째, 소프트웨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유통시장의 급속한 팽창이다. 특히, 최근 체인경영을 특성으로 한 소프트웨어 판매 방식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일련의 소프트웨어 체인 판매기업이 연달아 설립되고 있어 소프트웨어 유통 시장의 질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전문인

력의 부족현상이 두드려지고 있다. 현재, 중국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급 정부는 모두 앞다투어 인재 유치와 인재지원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인재양성을 정부사업의 핵심항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3) 소프트웨어 산업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은 80년대 중반 이후, 끊임없는 노력을 거쳐 기본적인 규모를 갖추었으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번역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활발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중국 정보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중국의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17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225억 위안에 달해 2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DC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시장에서 어플리케이션 솔루션 분야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PC 보급률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향후 5년간 동 분야의 성장은 계속되리라는 전망이다.

특히, 기업들은 어플리케이션 솔루션이 업무의 능률 향상에 있어 핵심 도구가 되고 있음을 인지함에 따라, 사무 자동화, 회계, 인사/급여 관리 및 ERP 분야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